

# 백련결사터 강진 용혈암 발굴조사 시급

## 강진군, 용혈암지 조사 결과 청자 불상 조각 다량 출토

백련결사의 역사적 무대이었던 전남 강진 용혈암지에서 다량의 청자 불상편이 출토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2월 25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덕룡산에 위치한 전남도 향토문화유산 제47호인 용혈암지에서 지난 2월 7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정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자 불상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고 밝혔다.

조사를 실시한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조사단장 한성욱)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물지 2동과 석열 3기, 용도 미상의 단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건물지의 경우 조선시대 평기와와 도자기가 중심을 이루며, 고려청자는 소량 출토되었으며, 용혈 내부에서는 청자불상편이 다량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청자 불상은 이전에도 많은 수량이 출토됐으나 정성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확인된 예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출토된 유물 가운데 청자불상의 경우,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용혈 내부의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청자불상이 발굴조사를 통해 다량으로 확인된 사례는 용혈암이 최초로 그 학술적 의미가 매우 높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건물지 2동과 석열 2기 등이 확인됐으며, 건물지 1동과 석열 2기는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청자불상의 확인은 용혈암이 종교

적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유물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으며, 고품격 고려청자의 대표적 생산지인 강진지역의 청자 소비형태 등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청자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발굴소견을 통해 "이번 조사는 축대 내부를 중심으로 한 시굴조사로 그 동안 문헌으로만 일부 알려져 왔던 용혈암의 규모와 성격 등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굴조사의

### 학술조사 결과 최초 청자불상 출토 고려청자 생산 연구의 귀중한 자료 용혈암은 백련 8국사 중 4명 주석 방치할 경우 도굴 등 우려 있어

한계로 전체적인 건물의 규모와 배치는 물론 구전으로 내려오는 탐지(塔址)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광산 개발로 인한 채석으로 축대의 일부가 붕괴되는 등 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높고, 많은 수량의 청자불상이 확인된 용혈 내부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안전과 도굴 등의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강진 백련사의 산내 암자였던 용혈암지는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245



강진 용혈암지에서 출토된 청자 불상 머리부분

년 4월에 원묘국사 요세 스님이 주석했다는 기록이 있어 1245년 이전에는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혈암의 본사인 백련사는 고려시대의 불교 민중운동인 백련결사를 주도했던 곳이며, 8국사를 배출한 고려의 대표적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용혈암지는 백련사가 배출한 8명의 국사 가운데 제 1세 원묘국사 요세(1163~1245년)와 제2세 정명국사 천인(1205~1248년), 제4세 진경국사 천책(1206~1294년), 제7세 진감국사 무위가 주석하면서 고려 후기 종교 민중운동인 백련결사를 주도했던 역사적인 유적이다.

용혈암은 동문선(東文選), 만덕사지(萬

德寺志) 등 관련 역사기록에 따르면 13세기까지는 운영됐으나 조선 전기에 폐사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9세기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된 후 매년 용혈에 놀러갔다는 기록도 있어 폐사된 이후에도 식자들의 인식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혈암지는 현재 터만 남아 있으며 높이 4~5m 되는 높은 축대에 동서 20m, 서북 17m의 약 330㎡에 달하는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뒤편으로 길이 15m, 높이 2~2.5m의 동굴인 일명 '용혈(龍穴)'이 위치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보문종 종정 효광당 혜일 스님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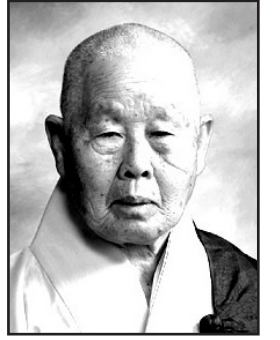
세수 94세 · 법랍 79세 28일 전주 정혜사서 영결식

대한불교보문종 제5대 종정 효광당 혜일 스님이 2월 26일 오전 1시 전주 정혜사에서 세수 94세, 법랍 79세로 입적했다.

1919년 전북 완주의 불심이 깊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934년 15세의 나이로 명주 스님을 은사로 전주 정혜사에서 출가했으며, 같은해 매곡 스님을 계사로 정혜사에서 사미니계를 받았고, 1941년 금산사에서 박한영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다.

이후 1964년 정혜사에서 목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완산선원 선원장과 보문종 7,8,9,10대 총무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2005년 종정에 추대됐다.

스님은 1990년 보문종 제7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제8~10대까지 연임하면서 보문종의 행정과 교화, 수행에 대



한 체계를 갖추게 했다. 이후 지난 2005년부터 보문종 제5대 종정에 부임해 종단의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받으며 후학 양성과 보문종이 비구니 종단으로서 위상을 세우는 토대를 다졌다. 혜일 스님의 영결식은 2월 28일 오전 10시 전주 정혜사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열려

불교와 지역의 토속신앙이 결합된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2월 23일 전북 부안군 석포리 입암마을에서 열렸다.

불교신앙과 민간신앙의 결합에 의한 복합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민족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수령 1천년과 700년으로 추정되는 내소사 경내의 등당산(일명 할머니 당산)과 입암마을의 날당산(할아버지 당산) 느티나무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그동안 사찰의 주도 하에 전승돼 왔다.

내소사 주지 진학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주변 5개 마을주민 800여명은 스님들의 독경, 범패의식에 이어 당산굿, 길굿, 샘굿, 성주굿, 천룡굿, 용출감기를 함



계 하며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다.

내소사 주지 진학 스님은 "사찰과 민간이 함께 어울려져서 당산제를 지낸 유례는 찾아보기 힘든 귀한 전통문화유산"이라며 "지역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내소사와 당산제 보존위원회, 지역주민과 함께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교 각 분야 리더양성 강좌 마련

## 빛고을 불교리더스클럽 4월 3일부터 도법 스님 등 강사 13명

광주지역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불교리더스클럽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불광출판사와 공동으로 '제2기 빛고을 불광 MY리더스클럽' 강좌를 개최한다.

2010년에 개최돼 광주불교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불교리더스클럽은 '좋은 벗들과 떠나는 행복한 구법여행'이라는 주제로 4월 3일 개강을 하여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총 13분의 강사와 다양한 주제로 만난다.

강연에 참여한 강사도 불교계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로 꾸렸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서는 도법 스님(실상사 회주)은 1990년부터 불교결사체인 선우도량을 만들고 지리산 실상사에서 귀농학교, 대안학교, 인드라마생명공동체를 이끄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강좌에는 '삶을 위한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4월 3일 첫 강의를 연다.

△제2강은 4월 10일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에 참여한 불광교육원 전임강사인 목경찬 박사의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진행된다. △제3강은 4월 17일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로 지난 20여 년간 심리학과 명상의 접목을 시도한 김정호 교수의 '마음챙김으로 스트레스와 친구 맺기'가 진행된다.

△제4강은 4월 24일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불교의 수행과 공부를 통해 경험하고 터득한 보편적 지혜를 정신 치료에 응용하고 있는 전현수 박사의 '생각버리기 연습'이 △제5강은 5월 1일 한국불교심리치료 연구원 원장으로 불교 심리학과 상담, 자

아초월 심리 치료관련 강의와 워크숍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서광 스님의 '치유하는 불교 읽기' △제6강 5월 8일 동국대 교양교육원 강의 전담 교수로 활동 중인 자연 스님의 '상징으로 본 사찰의 의미' △제7강은 5월 15일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과 동국대 겸임교수로 강연을 하고 있는 유근자 교수의 '불교미술의 상징과 문양' △제8강은 5월 22일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운영위원과 불교학 연구자 상임이사인 김재성 교수의 '초기불교에 보이는 재가자의 이상적인 삶' △제9강은 5월 29일 前 송광사 주지인 현봉 스님의 '대승불교' △제10강은 6월 5일 조계종 중시위원장과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인 지안 스님 △제11강은 6월 12일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과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겸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제12강

은 6월 19일 조계종 교수이사리, 동국대학교 명상상담학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명법 스님의 '인연습관 속에 숨어 있는 자아 만나기' △제13강은 6월 26일 고려대 철학과 교수로 우리선우 상임대표와 철학연구 편집장을 맡고 있는 조성택 교수의 '우리 시대에 불교관' 등이 진행된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영섭 사무처장은 "이번 불교리더스클럽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전문강좌를 개최해, 지역 재가불자 리더를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목적으로 한다"며, "향후 수료 후에도 동문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와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지역불교의 다양한 강좌개최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좌는 1시간 30분이 진행되며, 30분간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 무각사 이경자 입사 작품전 개최

조선시대 마지막 입사장(入絲匠)의 전통을 잇는 작품전이 광주에서 열린다.

금속공예가 이경자 씨는 3월 1일~31일까지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갤러리에서 '항하사(恒河沙)에서 별을 보다'라는 주제로 입사 작품전을 개최한다.

무형문화재 입사장인 이경자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별(부처가 깨달은 새벽 별)을 쇠(鐵)와 금·은실로 표현한다.

입사란 도자기의 상감기법처럼 쇠의 표면에 금·은·동 같은 재료를 박아 넣는 기법으로, 이번 전시회에는 쇠의 표면에 무수한 두드림에 의해 흙을 만들고, 그곳에 금실이나 은실을 매워 거듭된 반복으

로 원하는 문양이나 형태를 만든 작품이 전시된다.

광주의 첫 개인전을 갖는 이경자 씨는 소감을 통해 "출가수행자 신타르타가 좌선산매에 들어 새벽 별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뜬 별을 바라보며 생명 가치의 공존을 바라는 마음"이라며 "마음속에 삶 전체를 빛나게 해 줄 부처님 별 하나를 걸어주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금속공예가 이경자는 1977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무형문화재 19호 입사장 보유자로 1984년부터 전국 12개 박물관의 은입사 유물 200여 점을 재현하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